

외신 동향

◇ The high cost of falling prices, Economist('15.2.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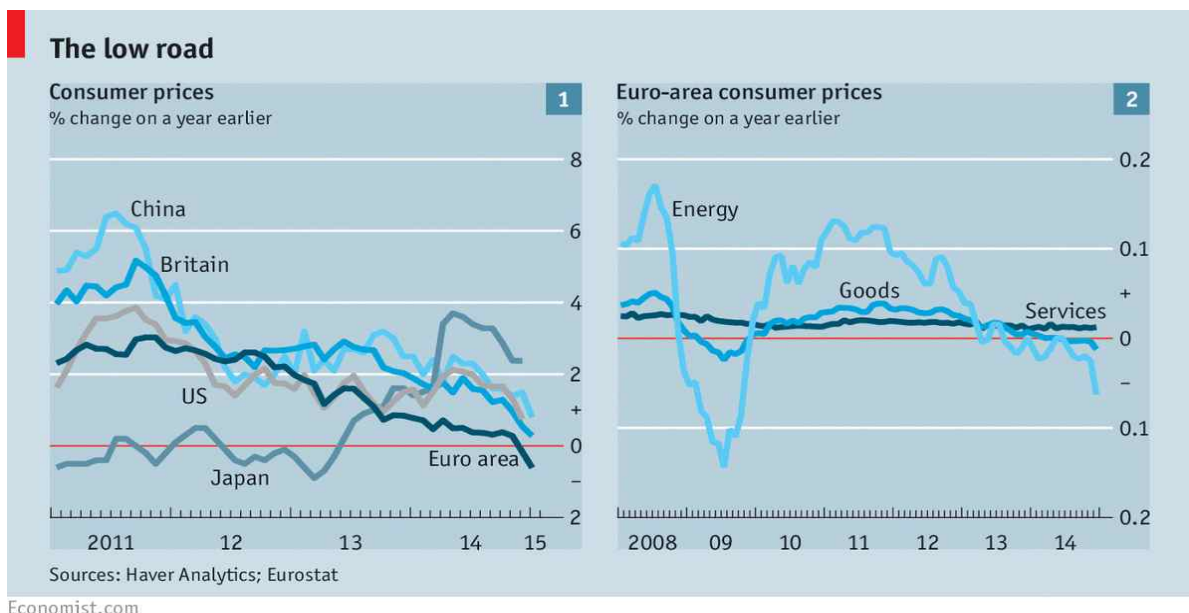
- 디플레이션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, 최근의 초저물가 또는 負의 인플레이션은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

□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

-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은 인플레이션율이 경제성장율(2%이상)을 훨씬 밑돌고 있음
-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0.8%에 불과하며, 일본은 '14년에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율(2.4%)를 보였으나 '15년 들어 빠르게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고 있음
- 유럽연합은 19개 회원국중 15개국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음
(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는데, 1%수준에 불과함)

□ 경제부문별로는 석유 등 에너지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며, 상품가격도 동반하락 하였음

- 그 반면에 에너지, 교통 및 기타 석유관련 중간투입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서비스부문에서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



□ 디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

- (소비수요 감소)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소비지출을 연기함으로써 유효수요를 감소
- (고용 부진) 여타 부문에서의 가격하락과는 달리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채용에 신중해질 것임
 - * 다만, 최근 미국, 영국 등의 경우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강한 고용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
- (부채 부담)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은 정체되는 반면, 가격하락으로 부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부담이 더 커짐
 - * 최근 유로존 은행들의 경우 과다한 불량 부채 보유로 인한 상환부담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
- (통화정책 수단의 소모)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, 더 이상 확장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없어짐 (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임)
-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요 진작을 위해 정책금리를 거의 0%수준까지 내려서 추가적 금리완화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